

과학소설 판매량 역대 '최고'

전년보다 47% ↑ ... 코로나19 여파로 과학에 대한 독자들의 큰 관심이 주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과학 분야의 판매량을 역대 최고로 끌어올렸다. 이는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한 교양과학서 구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여성들의 구매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교보문고는 과학 분야와 SF소설 분야의 올해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과학 분야는 2018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47%나 판매량이 늘었다.

SF소설 분야는 2016년 판매 정점을 찍고 하락을 기록했지만, 최근 3년 연속 급격한 성장

세를 보이며 올해도 작년 대비 12%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두 분야 모두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다.

교보문고는 과학 분야의 성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과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한 교양과학서 판매가 늘었다.

또 '집콕' 기간이 연장되면서 TV 시청시간이 늘자, 책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된 '코스모스', '이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올해 과학 분야 판매량 1~ 2위에 올랐다. 3위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기적 유전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두 분야 모두 여성의 구매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과학 분야 판매자 중 여성 비중이 47%에서 50%로, SF소설은 54%에서 63%까지 늘었다.

김현정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담당은 "과거 과학은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분야의 판매량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월1일부터 7월17일까지의 판매량을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집계한 결과다.

/뉴스1

국립무형유산원, 'e-무형유산 배움터' 시범 운영

내달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형유산 체험교육 'e-무형유산 배움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무형유산 배움터'는 온라인에서 전국 각 지역의 소중한 우리 무형문화재를 즐겁게 배

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던 무형유산 체험교육을 동영상 강의로 제작해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의로는 강령탈춤·진주검무를 배우는 'e-

무형유산 배움터-흥겨운 꾸러미'와 금박장·평택농악을 배우는 'e-무형유산 배움터-신나는 꾸러미'가 마련됐다. 1종목당 50분 내외의 동영상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참여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송한 교구제인 '무형유산 선물 꾸러미'를 이용해 집이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형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신청·문의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뉴스1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익산시는 왕도역사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문화체험으로 코로나19 극복

익산 왕도역사관, 초등생·가족단위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백제 사람들이 사랑한 보석·마한 보물탐험대·고백다감 여행 등

익산시는 왕도역사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 증 극복을 위해 운영된다.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오는 8월 13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를 진행한다.

'백제 사람들이 사랑한 보석, 유리'를 주제로 한 이번 체험은 지역의 백제문화에 대한 교육과 프락음악회가 함께하는 복합 체험 프로그램이다.

신청접수는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http://www.iksan.go.kr/wg>)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마한박물관에서는 8월 둘째, 셋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한 보물 탐험대'를 진행한다.

'마한 보물 탐험대'는 올해 처음 신설된 체험으로 총 2회로 나눠 운영된다. 1기는 '마한의 새', 2기는 '마한의 옥'을 테마로 마한 유물에 대한 탐구와 함께 박물관 학예사에 대한 진로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21일부터 31일까지 마한박물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국립익산박물관·김정소년연구소와 함께 '고백다감 여행- 옛날 백제로 떠나는 박물관 여행'을 오는 8월 1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마한백제의 중심지 익산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활기를 채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해충 퇴치부터 코로나19 예방까지

전북대 문화재 방역 '호평'

3월부터 서부권 문화재 곳곳에

여름철 맞아 정읍 김명관 고택 방역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단장 남해경 교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북도 문화재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올 3월부터 서부권 문화재 294개소를 특별 방역하고 있는 사업단은 지난주 우리 고장의 대표적 살림집이자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인 정읍 김명관 고택과 그 일원에 방역을 했다.

김명관 고택은 여름철에 탐방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고택 일원에서는 생생 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기, 개미 등을 퇴치할 수 있는 해충 방역과 문화재 일원에 연막 소독, 코로나 19를 대비한 방역 등을 실시했다.

정읍 김명관 고택은 조선 정조 8년(1784)에 지어졌으며, 풍수지리학에서 명당이라고 불리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었고 200년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조선 중기 사대부 집안의 가옥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행랑채·사랑채·안행랑채·안채·별당으로 이뤄졌다. 이



고택은 건축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민속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해경 사업단장은 "여름철에는 해충이 많이 생기는 만큼 이번 방역을 통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방역 활동과 더불어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에도 돌봄사업단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2018년에 시작해 3년째 전북 서부권 문화재 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전북 서부권의 294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여름방학 학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여름방학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예술·체육 등 22개 과정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자기만의 작품 만들어 보기, 드론을 이용한 다이나믹한 '드론축구', 예술활동으로 '목공예', '팝아트', '기타 교실', '우쿨렐레', 인문학 감성을 충족시켜 줄 '여름독서교실'과 체력증

진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이번엔 신규 프로그램으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직접 화분을 심어 볼 수 있는 '어린이정원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20일부터 회관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무더운 여름을 마한교육문화회관 여름방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한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과(840-7236)로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